

보도

‘후마 재도약 실행위’ 열려 … “내부문제 해결 먼저 아니냐”

후마 커리큘럼 개편

안나연 기자 na@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올 여름 중으로 재도약을 위한 논의를 실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양 캠퍼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게 될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 빠르면 2학기, 적어도 내년 1학기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 커리큘럼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양 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후마 학장 및 PD 교수진 등이 참여한 실행위원회의 상견례 및 1차 회의가 진행됐다.

후마, ‘액션플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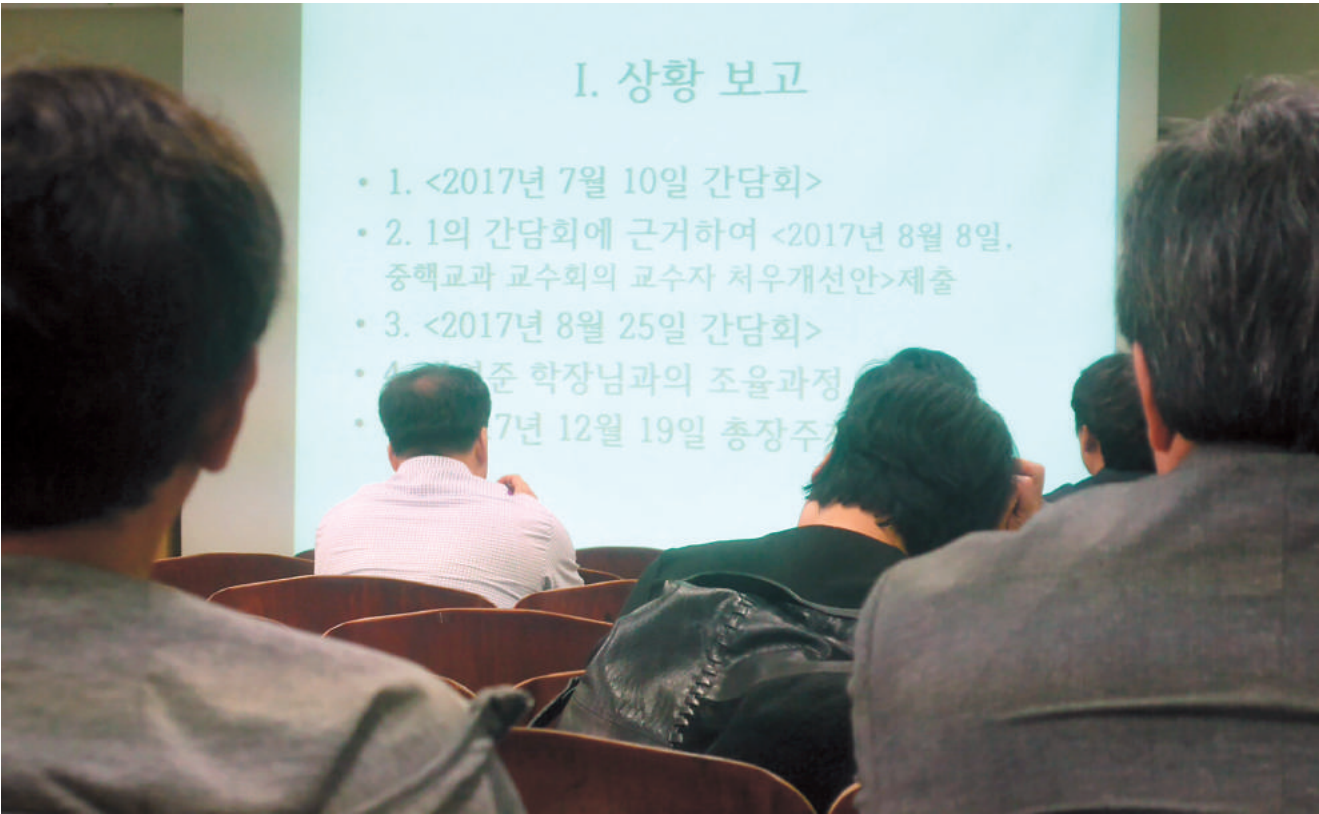
여전히 문제점 잔존

후마는 이미 ‘후마 교양교육 혁신 방안(혁신안)’을 ‘액션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혁신안은 작년 여름에 진행된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 특별TF’(특별TF)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안은 학사 운영 개선 및 교과 운영 개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중핵 강좌 당 정원은 4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줄었다. 후마 이영준 학장은 “대형강의 7개를 줄이고 소형강좌를 늘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TF에서 논의된 사안 중 ‘평가 체계 전면 쇄신’처럼 실행되지 않은 것도 남아있다. 이 학장은 “평가에 관해서는 현재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가 모이기 때문에 존중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서 학습으로”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전 교과에서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후마에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 방식 전환, 교육 방식 개편, 교과목 개편이다. 이는 지난 특별TF에서 실행되지 않은 ‘성적의 평가가 아닌 역량의 평가’, ‘발표-토론-글쓰기’도입,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교과목 신설’과 이어진다.

‘성적의 평가가 아닌 역량의 평가’를 실천한 좋은 예는 이화여대다. 지난 3월 이화여대는 ‘학부 교수자율평가’를 도입했다. 학부 교수자율평가는 성적 평가에 있어 교수의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성적평가를 유연화 하고 학생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확일



지난 2일 기존 시간강사들과 객원교수등이 모여 ‘중핵교과 교수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최명규 기자)

적인 상대평가로 학생 성적을 평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절대평가를 사용하거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결합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선택하더라도 A학점 비율을 35%로 제한하던 성적 등급별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이화여대 교무처 측은 “해당 제도는 이번학기가 끝나면 단과대학 별로 교수진에게 연락해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는 2018학년도 시범 운영되는 동안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발표-토론-글쓰기’ 교육과정 도입

학습 방식 전환 이루자

실행TF의 팀장인 지구사회봉사단(GSC) 단장 우기동 교수는 지난 4일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평가 방식의 경우 후마가 처음 설립될 때에도 나왔던 의견”이라며 “2011년 후마 출범 당시 ‘시민교육’처럼 활동이 포함되는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탐색’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과목은 상대평가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토론-글쓰기’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는 것 역시 후마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다. 이는 지난 해 여름 진행된 특별

TF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이때 보고된 ‘혁신안’은 “학습의 방식 전환을 위해 전 교과에 ‘발표-토론-글쓰기’를 도입해 학사운명을 개선하겠다”고 언급됐다.

‘발표-토론-글쓰기’를 교육과정에 도입한 긍정적인 예는 고려대가 있다. 고려대는 이번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자유정의진리’ 교과목을 공통교양으로 채택해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수강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탐구의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인식을 배우는 내용으로 우리학교의 중핵교과와 유사하다. 해당 교과는 한 학기 동안 7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한 개의 강좌별로 총 2주에 걸쳐 수업한다. 일주일에 75분 수업을 두 번 제공하는 강의임을 감안하면 학생은 4번의 수업을 통해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다.

고려대 기초교육원 이상조 과장은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교과와 사회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 해당 교과목을 공통 교양으로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토론과 발표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강좌를 듣는 80명의 학생들은 우선 학교에서 제작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며 궁금한 점과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후 교육지원시스

템을 이용해 교수님께 질문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은 ‘Q&A’ 형식을 갖는다. 교수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이 아닌 학생들이 쟁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20명씩 나뉜 각 분반에서 학생이 토론한다. 이때 교수 개입은 없으며, TF(Teaching Fellow)라는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질문을 받는 조교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렇게 나뉜 분반은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총 213개이다. 강좌를 마무리하는 수업은 토론을 하는 데 이때에는 다시 80명의 학생들이 모인다. 조별로 논의 내용을 합동 발표하며 정리한다.

실행위원단 의견 차 보여

세부 의견 아직 협의 중

물론 우리학교 ‘빅뱅에서 문명까지’ 강좌도 대형강좌에 플립러닝 기법을 도입해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학습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대인원 강의를 다시 분반으로 나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실행위원회의 상견례 및 1차 회의 과정에서 실행위원 간 의견차가 보이기도 했다. 서울캠 과학 PD 공우석 교수는 “학생 의견도 중요하나 교수와 행평가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며 “소수가 흐름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을 비롯한 기반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기동 교수는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일단은 학생 위주로 재도약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될 후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학생 위주로 생각한 개혁안을 적용하자”는 입장과 “예산을 비롯해 대학본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혁안 마련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내부문제 해결해야

혁신 가능하다

또한 후마의 도약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후마 정복철 부학장은 “중핵교과 객원, 시간강사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교수자들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분열된 구조 속에서 제2의 도약이 가능할런지 난감하다”며 후마 내부의 교수 분열문제와 시간강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소통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 부학장은 “국제캠.퍼스 학장, 부학장, 두 부총장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어떤 무게감 있는 결정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며 “소통의 부족으로 지금은 본부와 현장, 후마 양 캠퍼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캠퍼스의 중핵교과 교수들의 신분 안정계획 또한 불투명하다. 불안정한 교강사들의 신분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신분안정화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이 “국제캠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캠퍼스의 계획은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캠은 중핵교과 객원교수들의 비정년전임교수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이며,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중핵교과 교수들만 신분전환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타 교과의 신분 안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2018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수시전형 모집 안내 | | |
|--|--------------------------------------|---|
| 구분 | 일정 | 내용 |
| ①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2018. 7. 2(월) 10:00 ~ 9(월) 17:00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100%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 · 보관 후 전형당일 지참• 제출처 :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 (예술디자인대학관 107호)•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2018.7.9.(월) 17:00 도착분까지 인정)- 등기우편(2018.7.9.(월) 일부 등기소인분까지 인정)발송•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
| ② 서류 도착 확인 | 2018. 7. 3(화) 10:00 ~ 9(월) 17:00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로그인 → 내 원서 보관함 → 접수 원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클릭 → 오른쪽 중앙 ‘서류도착 확인’• 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자가 직접 확인 |
| ③ 전형일시 | 2018. 7. 14(토)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별 전형장소 공지 예정일 : 2018. 7. 12(목)• 공지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 |
| ④ 합격자 발표 | 2018. 7. 23(월) 1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 |
| ⑤ 합격자 등록 | 2018. 7. 24(화) 10:00 ~ 31(화) 16:00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함 |
| ※ 전형료 안내 내국인 전형 - 석사 : 75,000원, 석박통합/박사 : 85,000원, 예체능계열 : 95,000원(수수료 포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관련 모든 안내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 -커뮤니티-공지사항)에 전제 공지됩니다. (지원자 개별 공지 없음) | | |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 |

2018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 · 편입생 모집요강(경희전형)

-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주일)
- 석사학위과정

| 구분 | 학과 | 전공 | 모집인원 |
|-----|----------|----------------------|------|
| 신입생 | 글로벌기업법학과 |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선관리법전공 | ○○명 |
| | 공공법학과 |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 |
| | 중국법학과 | 중국법전공 | |
| | 지적재산법학과 |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 |
| 편입생 | 조세법학과 | 조세법전공 | ○○명 |

● 특별과정

| 구분 | 학과 | 전공 | 모집인원 |
|------|---------------|----|------|
| 특별과정 |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 | ○○명 |

-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100%
- 장학제도 : 공무원장학, 공공기관장학, 평생교육장학, 경희동문장학, 조교장학 등
- 경희전형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 6. 11.(월)~6. 21.(목) 17:00 | 우편·방문, E-mail접수 |
| 전형일 | 2018. 6. 23.(토) 10:30 | 10:00까지 법학관 수험생대기실 입실완료 |
| 합격자 발표 | 2018. 6. 29.(금) 16:00 | interlaw.khu.ac.kr |
|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 2018. 7. 2.(월) ~ 7. 4.(수) | 예치금 : 300,000원 |

※ E-mail접수 : khsb2670@khu.ac.kr / 우편접수는 6. 21.(목)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경희전형 : 전형료 50,000원

● 제출서류

| 구분 | 수량 | 비고 |
|------------------|----|---|
| 입학원서 (소정양식) | 1부 | · 본 대학원 홈페이지(inter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1부 | ·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 대학(교) 성적증명서 | 1부 |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 법무대학원 특징

- 주말 강좌 개설에 따른 학생 선택권 확대
-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다양한 장학제도 : 공무원장학, 공공기관장학, 동문장학, 모병장학, 평생교육장학 등
- 특별과정 수료자의 경우,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기 취득학점(8학점) 인정가능
- 전략물자관리원과의 MOU를 통한 전략물자관리와 관련된 강좌 개설
- 중국법학과와 경우 중국인민대학과 학점교류 협정 체결 완료 및 중국정법대학과의 학점교류 (추진 중)
-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의 지원을 환영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2018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 |
|--|--|
| 2018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 기간 : 2018. 6. 1(금) ~ 6. 25(월) | |
| ●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
|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
| ●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8. 6. 27(수) ~ 6. 29(금) | |
| ●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8. 6. 15(금) ~ 6. 26(화), (단, 6. 24~6. 25 제외)<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인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8. 6. 27(수) ~ 6. 29(금) | |
| ● 강의평가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당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 |
| 교무처 학사지원과 | |